

“한우 위탁사육 중단하라”

전북한우협회, 진안군청 광장에서 규탄대회 무진장 축협, “지역농가 민주적 의사로 추진”

전북한우협회 전북도지회(회장 전운섭)는 22일 오후 1시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전라북도 한우협회 회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안군청 광장에서 한우 위탁사육 반대를 위한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한우협회 관계자는 “농·축협이 우리 농민의 당연한 권리인 생산현장에서 욕심을 부리는 위탁사육에 대해 2013년부터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위탁사육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축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의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무진장축협측은 위탁사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반 농민적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다시한번 위탁사육 감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무진장 축협 관계자는 “지역축협의 위탁사업과 생육장 사업은 조합원인 지역 한우농가의 민주적 의사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조합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진장축협은 축산자재 5억 3,800만원, 출하장려금 2억4000만원, 한우등록비 9500만원, 조합원 자녀 장학금 3500만원 등 매년 18억4000만원 수준의 교육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 총 12억6100만원을 농가에 환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무진장축협은 한우협회의 요구를 들어주면 똑 같은 조합원이고 한우농가인 위탁 농가가가 수입원이 끊겨 자녀들 학자금은 물론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는 제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자’

무주군,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지난 22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지회장 황의탁)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새마을운동 제창 46주년과 제6회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고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자”는 국정철학을 되새긴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이해연 의원과 무주경찰서 한도연 경찰서장을 비롯한 새마을지도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해 태극기와 새마을기 전달, 결의문 낭독, 새마을 노래 제창 등의 시간을 함께 했다.

기념식에서는 부남면 대소부녀회 이판심 회장(65세)과 적상면 고방리 이복재 이장(47세)이 새마을 운동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

를 인정받아 무주군수 표창을 수했으며, 안성면 두문마을 김명옥 부녀회장(62세)이 공로상을, 무주읍 전도마을 이순자 부녀회장(67세), 무주읍이 전라북도새마을회 회장을, 안성면 공대마을 장영애(67세)부녀회장과 무풍면 지일마을 하명순 부녀회장(66세)이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 회장을 받았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축사를 통해 “새마을 운동은 가난을 숙명처럼 여기며 살던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행동철학을 심어줬고 오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다”며 “새마을 운동과 기본 이념을 같이 하고 있는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통해 제2의 무주발전기를 이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이서 혁신도시 찾아 현장 토론회

박성일 군수, 청소년·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상황 점검

완주군이 10만 완주시대 개막을 선도하고 있는 이서면을 찾아 현장에서 답을 구하기 위한 현장, 소통 행보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22일 박성일 완주군수, 이서면장 등 군정 주요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이서 에코리 2단지 작은도서관에서 현장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토론회에서는 혁신도시 인구 증가로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서 혁신도시의 도시행정 서비스 제고와 원도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을 중심으로 총 35건의 지역 현안사업들이 집중 논의되었다.

특히 이서 혁신도시 청소년·문화

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건립 부지는 모두 확보 완료되었으며,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서혁신도시 청소년 문화체육센터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북카페, 청소년 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지하층, 지상3층 규모로 201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14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정 부지 찾은 자리에서 “이서 혁신도시 청소년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문화체육시설 부족을 호소하는 이서면 원주민과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추진하는

사업이자 민선6기 완주군의 삶의 질 핵심 정책 중 하나”며, “2018년 상반기내에 반드시 준공 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혁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 문화의집 운영, 공원 활성화, 공영주차장 확보, 청소행정, 시내버스 노선개편, 119안전센터 건립 등 이서 혁신도시 생활안전 인프라 및 불행 해소를 위한 이서면과 실과산소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 되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이서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구도심과 원주민들을 위한 소통과 현장행정 추진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우렁이농법으로 용담호 수질보전

벼농사의 75% 1500ha에

진안군은 올해 전체 벼농사의 75%인 1,500ha를 우렁이농법으로 전환한다.

군은 용담호 주변 농경지에 제조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우렁이농법을 도입해 용담호 수질 및 청정 진안고원 지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군은 군 벼 재배 면적의 36%인 774ha에 우렁이를 지원해 친환경 쌀을 생산했다.

올해는 전체 벼농사의 75%인 1,500ha를 우렁이농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우렁이농법은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농업인의 건강 도모, 진안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 1식4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군은 민선 6기 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건설에 걸맞게 청정환경 실현이라는 정책을 각 분야별로 세분화해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우렁이농법은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로 수질 및 환경 보전은 물론 진안고원 친환경 농산물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이항로 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 대상’을 수상했다.

이 군수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이미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용담호 상류지역의 환경을 보호해 진안고원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공적을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 “벼 이앙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전 주민 대상 우렁이농법의 기본 기술교육 추진과 더불어 제조용 우렁이 의 적기 공급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프레이 3NO 운동과 함께 우렁이 농법을 전 재배면적으로 확대해 용담호 수질보전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누리파크 준공 개장

홍보관·가공체험장·오토캠핑장 등 갖춰

장수군은 22일 오후 3시 장수읍 두산리 일대에서 장수누리파크 준공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개장식엔 최용득 장수군수를 비롯해 오재만 군의회의장, 김정모 전북도청 농촌활력과장, 관내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장수읍 두산리 의암공원 일대에 들어선 장수누리파크는 총사업비 135억원이 투자됐으며 92,169㎡의 부지에 장수현우, 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 지역특산물인 레드푸드를 주제로 홍보관, 레스토랑, 가공체험장, 오토캠핑장 레드푸드 열매원 등의 시설이 들

어서 있으며 일부 유료시설을 제외하고 연중 무료 개방된다.

또한 장수누리파크 내 컬러푸드레스토랑은 5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6월부터는 오토캠핑장 이용이 가능하다.

장수군은 장수누리파크 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농촌 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장수 지역의 대표축제인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와 연계해 이 일대를 장수군 6차 산업의 전진기지화 할 계획이다.

최용득 군수는 “앞으로 장수누리파크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군, 농기계임대 등 '호응'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현장중심 농기계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고객지원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 △농작업 대행, △농기계순회수리,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청정환경과 맑은물 유지를 위한 농기계 폐오일교환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72종 513대의 농기계 및 농작업기를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임대기간은 최장 3일로 재 임대도 가능하다.

농작업 대행은 일반희망농가,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 농기계의 사전점검 및 수리를 통해 최적의 기계 상태를 상시 유지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은 관내 오지마을 중심지로 연간 110회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간단한 수리는 물론 안전사용 교육, 친환경 엔진오일 교환 등으로 농기계의 수명을 연장하고 농업인들의 경영비절감에 큰 일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고객지원센터는 지난해 1억원의 세입 증대는 물론 60여억원의 경영비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특별기획

무주군,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위생·안전·영양관리 진행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정병희)가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대한영양사협회 전라북도영양사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안전·영양관리를 하며, 이날 말부터 등록 신청을 받아 대상 시설에 대한 식품 위생, 영양관리 컨설팅과 대상자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일에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의 관리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목적, 2016년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방향과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이 공유됐다.

군 어린이집 관계자는 “작은 규모의 어린이 집에서는 사실 전문 영양사 배치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 아이들에게 더 나은 식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며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해서 위생, 영양 분야의 전문적인 관리 지도를 받아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벼 농작물재해보험 다음달 31일까지 가입 당부

장수군은 자연재해로부터 벼 수확감소에 따른 재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국가, 30%는 지자체, 20%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벼의 경우 자연재해·화재뿐만 아니라 특약으로 병충해(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피해도 보장한다.

특히 올해부터 무사고환급특약제도가 벼 상품에 시행돼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 피해를 입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중 7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가 없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년에는 무사고 환급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오는 5월말까지 빠짐없이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